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친이란 ‘저항의 축’ 연쇄폭격...헤즈볼라에 이어 예멘 반군 공습



이스라엘이 이란을 주축으로 한 중동의 반이스라엘, 반미 무장조직 연대인 ‘저항의 축’을 차례로 폭격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29일(현지시간)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를 폭격했다고 밝혔다. 23일부터 한 주간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집중 공습한 이후 예멘으로 시선을 돌린 셈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대변인 데이비드 아브라함 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정찰기를 포함한 수십 대의 공군 항공기가 예멘의 라사이사와 호데이다 등지의 후티 반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예멘 반군이 이스라엘 벵구리온 공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스라엘 공군은 예멘 호데이다까지 약 1천700km를 날아 폭격 작전을 수행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호데이다의 발전소와 항구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공군 지휘통제실에서 예멘 공습을 지켜본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아무리 멀어도 적을 공격하는 데에는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예멘에서는 4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고 후티가 운영하는 보건부가 밝혔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의 일원인 예멘 반군은 이달 들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에도 후티의 텔아비브 드론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자 호데이다 항구의 후티 반군 시설을 전투기를 동원, 보복 공습해 3명이 죽고 87명이 부상했다.

이스라엘군의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은 이날도 이어졌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반군과 동시에 전쟁을 벌이는 ‘3면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배후인 이란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저항의 축’ 국가들을 잇달아 공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반관영 타스님 뉴스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은 7월 31일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된 데 이어 27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폭사하자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으나 아직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통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자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야고보서 4:1,7)

하나님, 작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도화선이 되어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친이란 세력과의 전쟁으로 확산되어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중동지역을 주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중에 싸움이 죄로 말미암는 정욕으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하오니,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전쟁의 상황에도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분노와 다통을 조장하는 사탄의 세력을 꾸짖어 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민간인들의 피난처가 되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에콰도르, 가뭄에 화재까지 고통 가중

극심한 범죄에 시달리는 에콰도르 수도 키토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에 화재까지 겹쳐 더욱 고통받고 있다고 뉴스1이 27일 AFP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지난 24일, 키토의 동쪽 외곽 지역에서 화재가 5건 발생해 6명이 다치고 100가구가 대피했다. 현지 경찰은 5건 중 1건의 화재를 고의로 일으킨 한 남성을 체포했다. 이번 화재는 3개월 이상 거의 비가 오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해 피해가 더 컸다. 에콰도르의 24개 주에서 20개 주는 가뭄으로 인해 적색경보를 내린 상태다. 에콰도르는 올해 들어 3,300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3만 8,000헥타르의 산림과 초목이 불탔다. 에콰도르는 극심한 갱단 범죄로도 시달리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마약 갱단과 정부 간 충돌이 심해지면서 살인율이 8배나 증가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시편 107:13-14,20)

하나님, 갱단의 범죄로 신음하던 에콰도르에 오랜 기간 이어진 가뭄과 화재 사건으로 더욱 곤고해진 그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물고 메마른 이곳에 비를 허락해 주시고 인구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이지만 범죄가 만연한 이곳에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보내사 저들의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그리하여 에콰도르의 영혼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응답하심을 얻게 하옵소서.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신 예수님의 은혜가 고난 중에 빛을 발하게 하셔서 에콰도르에 고통의 눈물이 아닌 감사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소서.

▲ 네팔서 홍수·산사태로 사흘간 사망자 100명 넘어

네팔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사흘간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29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27일부터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는 하루 최대 322.2mm의 폭우가 쏟아져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바그마티강과 지류가 넘치면서 많은 지역이 물에 잠겼고, 주택이 떠내려갔으며, 도로와 다리가 마비됐다. 산사태로 주요 고속도로가 차단되고, 국내선 항공편도 중단됐다. 현재까지 카트만두에서 37명이 사망하고, 전국적으로 사망자는 104명에 이르며 64명이 실종 상태며, 3,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조됐다. 네팔 당국은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고속도로의 야간 운행을 금지했으며, 전국의 학교와 대학교를 3일간 폐쇄했다. 구조대원들은 헬기와 보트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라메시 레학 내무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을 구조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가 홍수와 산사태의 빈도와 심각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 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시편 32:6-7)

하나님, 심각한 자연재해로 큰 환난을 당한 네팔에 긍휼을 베푸사 속히 구조와 복구가 이뤄지게 하시고, 이들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난 앞에 네팔 국민들이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 고난처럼 보이는 이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나아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정부에게 도움 힘과 지혜를 주시고, 네팔 교회가 나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며 기도할 때 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고 주를 찬송케 하소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한인 피랍·잇단 운전기사 피살’ 페루 국가 비상사태**



한국인 사업가 피랍과 현지 대중교통 운전기사 피살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페루 수도권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구스타보 아드리안센 페루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이날부터 60일간 리마 광역 수도권과 카야오 내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비상사태를 내린다”며 “군과 경찰이 내부 질서 유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 대상지 중에는 현지 경찰이 베네수엘라 국적의 폭력조직원 3명에게 납치된 한인 사업가를 전날 새벽 극적으로 구출한 인데펜덴시아도 포함됐다. 현재 페루 리마를 중심으로는 흉포한 범죄자들에 의한 살인·강탈·협박 등 사건이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한인 사업가 피랍 사건뿐만 아니라 버스와 택시 등 운송업 종사자를 표적 삼은 강력 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2일엔 버스 운전기사가 괴한에게 저항하다 목숨을 잃는 등 지난 달 말부터 한 달 남짓 사이에 4명의 대중교통 기사가 도심에서 살해됐다. 운송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23일부터 신변 안전을 촉구하는 시위와 파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각급 학교에 임시 휴교령을 내리고 직장인 원격 근무를 장려하는 등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대중교통 운전자 대상 범죄 전담 부서를 경찰청에 신설하라고 지시했지만, 사회 불안은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페루 정부에서 치안 강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페루 정부는 이와 관련, 각종 강력범죄자 수감 증가에 대비해 남부 국경 인근 차야팔카 교도소 확장 방침도 발표했다. 이 교도소는 해발 4천 600m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용 시설로 알려져 있다. 한편, 페루 주재 한국대사관은 안전 공지를 통해 버스 탑승 시 차량 지연에 유의할 것과 차량 운행 중 정차 시 물건 판매·구걸·세차 등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출처: 연합뉴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펀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창세기 6:13-14)

하나님, 최근 흉포한 범죄자들에 의한 강력 범죄가 급증하여 포악함으로 가득 찬 페루 땅을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죄악을 일삼는 범죄자들을 주의 말씀으로 꾸짖어 주사 악한 길에서 돌이켜 페루가 속히 평안을 되찾게 하옵소서. 군과 경찰이 나서서 페루의 안정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 가운데 놓인 이 땅에 주의 교회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에 놓인 그 땅의 영혼들이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르완다서 ‘마르부르크병’ 20명 감염·6명 사망…“치명률 88%”

르완다에서 치명적인 마르부르크병에 20명이 감염됐고 6명이 사망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달 29일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사빈 은산지마나 보건부 장관은 지난 27일 엑스(X)에 올린 동영상 성명에서 “사망자 대부분이 중환자실의 의료 종사자”라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인과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 88%까지 이르는 높은 치명률과 강한 전염성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마르부르크병은 고열과 심한 두통, 출혈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이다. 과일을 먹고 사는 큰 박쥐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람 사이에서는 체액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현재까지 백신이나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으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수분 보충 치료가 권장된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3-14)

하나님,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전염병으로 고통하는 르완다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르완다의 영혼과 육을 고치시는 은혜의 주님으로 응답하심을 얻게 하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감염자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기의 때가 오히려 구원을 이루시는 날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 美 카말라 해리스,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 처음으로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했다고 뉴스맥스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올 더 스모크’ 팟캐스트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이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대마초를 피운다고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 저는 오랫동안 마리화나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리화나에 대한 해리스 부통령의 견해는 수년에 걸쳐 변화해 왔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으로서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적극적으로 기소해왔다. 그러나 상원의원이 된 이후,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 금지령을 폐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비폭력적인 마리화나 관련 범죄 기록을 말소할 것을 촉구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이사야 30:9,21)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며 좌로 우로 치우쳐가는 미국 위정자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십시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패역한 백성을 향하여 지금도 바른 길을 외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를 일깨우사 정욕을 부추기는 거짓된 말에 미혹되지 않고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히 외치며 그 길로만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의를 사랑하며 따르는 미국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사 여호와의 영예를 선포케 하시리라”
이란, 10년 형 선고 받은 아르메니아인 목사 1년 만에 석방**



이란에서 최근 10년 형을 선고받은 이란계 아르메니아인 목사가 복역 1년 여 만에 항소가 받아들여져 석방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8일 전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종교 자유 옹호 단체인 아티클18에 따르면 아누사반 아베디안의 항소가 테헤란 항소 법원 21지부에서 받아들여져 즉각 석방됐다.

아티클18의 디렉터 만수르 보르지는 “아누사반이 하루라도 감옥에 있었다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그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이 밝혀진 지금은 더욱 그렇다. 그가 겪은 모든 것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누사반은 2020년 8월, 약 30명의 정보 요원이 그의 집이 있는 테헤란 북동부 나르막 지역에서 열린 비공개 모임을 급습했을 때 체포됐다. 테헤란 혁명 법원 26지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그는 “교육 및 선전 활동을 통해 이슬람 신앙을 왜곡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하려는 불법 단체를 설립하고 이끌었다”며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아티클18에 따르면 에빈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아누사반과 그의 동료들은 심문 과정에서 정신적 고문과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 그들의 변론 노력은 그들의 인격과 신앙에 대한 모욕으로 이어졌다. 유엔 인권위원회(UHRC)는 이란 정부에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행사한 죄로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해 왔다.

현재 이란에서는 신앙과 관련된 혐의로 복역 중인 기독교인들이 최소 21명 있으며 그중 10명 이상이 에빈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란 정부는 기독교의 성장을 이슬람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 오픈도어선교회의 세계 박해 감시 목록에 따르면 이란은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으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가장 큰 위협에 처해 있다.

오픈도어는 “이란 정부는 기독교 교회의 성장을 서방 국가들이 이슬람과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며 “무슬림 배경에서 개종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정 교회는 종종 급습을 당하며 지도자와 구성원 모두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로 체포, 기소되고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고 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시편 102:20-22)

하나님, 이란에서 신앙을 이유로 부당한 선고를 받았던 아누사반 목사가 석방된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로 이란의 박해받는 교회가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더욱 주를 향한 신뢰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위험과 고난을 받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해방되게 하소서.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살아계신 주의 이름이 선포되고 이란의 모든 영혼이 주를 섬기는 그날까지 교회의 기도를 통해 쉬지 않고 일하여 주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정신 건강 위기, 성경적 세계관 결핍 때문

정신 건강의 위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 신경전달물질들의 불균형 때문이 아닌 성경적 세계관의 결핍과 더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미국 애리조나 크리스천대학교 문화연구센터(CRC)가 지난 1월, 18세 이상의 미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안, 우울증, 두려움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의 증가가 화학적 불균형보다 세계관의 결핍, 즉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신념 부족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경적 세계관이나 일관된 신념 체계가 부족할 때 사람들은 혼란과 공허함을 느끼고, 그 결과 불안, 우울증, 두려움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미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젊은 세대의 정신 건강 문제를 강조하면서, Z세대(1997년-2012년생)의 56%와 밀레니얼 세대(1981년-1996년생)의 49%가 정기적으로 불안, 두려움 또는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또한 40세 이하의 10명 중 7명은 삶에 명확한 목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중 5명 중 4명은 두려움과 불안을 자주 경험한다고 답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예레미야 24:6-7)

하나님, 정신 건강의 위기가 세상과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성경적 세계관의 결핍으로 인한 문제임을 주께 고하며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의 지혜보다 세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를 높이 두며 인생을 유리방향하는 영혼들에게 모든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문제임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없이 늘 두렵고 공허했던 인생들을 인도해 십자가 복음으로 초대하시고, 친히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승리를 선포케 하소서.

▲ 통일부, 北 억류 10년 '김국기 선교사' 즉각 석방 촉구

통일부가 이번 달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10년이 된 김국기 선교사를 포함해 북한이 억류한 우리 국민 6명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대변인 성명에서 “다시 한번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03년경부터 중국 단둥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한 김 선교사는 탈북민들을 위한 컴퓨터를 운영하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활동 등을 하던 중 2014년 10월 북한에 의해 불법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에 대한 생사 확인 및 즉각적인 송환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북한은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선교사의 아내 김희순 씨는 칠순을 넘긴 남편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며 매일같이 간절한 기도를 이어오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어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시편 105:18-20)

하나님, 수년째 북한에 억류되어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는 김국기, 김정욱, 최춘길 선교사님을 포함한 6명을 속히 석방케 하옵소서. 저들의 가족들과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여호와의 말씀으로 응답하심을 속히 받게 해주십시오. 북한 감옥에서 고통 중에 있을 저들을 주의 사랑으로 붙드사 환난 중에도 말씀의 단련을 받아 주를 힘 있게 의지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북한 수용소에 갇힌 한 몸 된 교회에게도 힘을 더하사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으로 북한의 영혼들을 자유케 하옵소서.